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3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행동지침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다시 듣고 싶은 설교 ②

예배하고 일하는 교회

(행 4:23-37)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 선교보고서와 같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오늘날의 교회처럼 많은 문제가 있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1. 예배하는 교회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24절). 공회 앞에 끌려갔던 사도들이 다시 동료들에게 돌아와 자신들이 한 일을 말하자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라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됩니다.

이 예배에서의 기도는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반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져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 나온 ‘세상의 군왕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행한 것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듯 그들은 그의 사도들에게 대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뱅이를 고쳤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는 영적인 일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의 원인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복음 선포를 금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저들의 무기를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시 2:4)라고 하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시 2:6)라고 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2. 일하는 교회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광 중에 있습니다.

(1)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32절)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백 사람이 모이면 백 가지 주장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마음과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하여 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한마음과 한



고 이종운 원로목사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중심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연합은 모든 것이 정확히 같은 닮은 꼴(conformity)을 말하는 것도, 기구적 연합(organizational unity)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뜻과 사랑과 목적이 같은 영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각각 다른 은사와 사역을 받았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2)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44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역에서 하나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일에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타인에게 관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더 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자기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이상을 축적하려 하지 않았고, 형제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소유권, 사용권, 감사권, 회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3)그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32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을 계속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재물은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수탁물이고 복음은 죄에 매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맡기신 수탁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복음도 독점하고 있으면 배임행위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행했습니다. 교회는 군중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브로에 있던 바나바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일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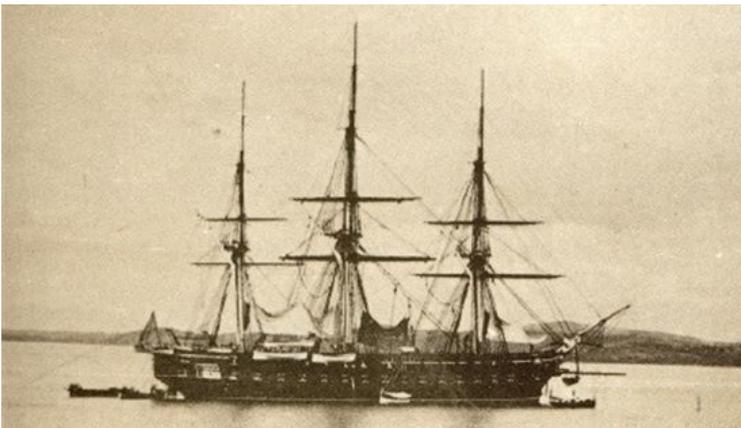
(순례자는 고 이종운 원로목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듣고 싶은 설교 10편을 선정하여 사순절 기간까지 게재한다)

조선 선교의 여명



손달익 위임목사

선교가 불가능했던 시기
이들이 굳게 닫힌
조선의 문을 두드린 것은
한국교회의 여명을 상징하는 사례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제너럴셔먼호

지배를 돕는 관리로도 일한 사람이지만 열정적인 선교사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1832년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서해안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 조선인의 조력을 받아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성서를 전달한 것에서 그의 선교사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통상을 거절하고 떠날 것을 요구하면서 귀츨라프의 조선 체류는 짧게 끝나고 말았다. 귀츨라프는 자신의 한국 방문이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조선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믿으며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한국교회는 1984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기독교 백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가졌다. 1984년이 한국기독교의 100주년이라는 것은 1884년이 한국기독교의 원년이라는 뜻이다. 100주년 기념대회 당시 1884년을 한국기독교의 원년으로 잡았던 것은 의료선교사 알렌이 1884년 9월 미국공사관의 의사로 내한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선교의 시작을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내한으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1884년 이전에도 한국을 찾았던 기독교인이나 선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반도에 최초로 정착한 유럽인으로 알려진 박연이나 하멜표류기로 유명한 하멜은 모두 개척교회 지역인 네덜란드 출신이었다. 1816년에는 영국 군함 알세스트호의 선장인 맥스웰 대령이 조선의 서해안을 탐사하다 마량진에서 조선의 관리 조대복과 이승렬에게 성서를 선물한 일이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 최초의 성서 전래 사례이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이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도를 찾기도 어렵다.

공식적인 선교가 개시되기 전에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귀츨라프와 토마스이다. 이들의 한국 방문은 서양 제국주의의 동양 침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귀츨라프가 타고 온 로드 애머스트호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배였고, 토마스가 탄 제너럴셔먼호는 미국의 무장상선으로 조선과의 통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은 분명히 선교사였지만 동양의 시장을 개척하고 싶은 서구 열강에 협력하면서 한국에 도착했고, 그들이 탄 배를 생각할 때 종교적 목적보다 상업적 목적이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귀츨라프는 아편 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국의 중국 식민



토마스 선교사

1866년 9월 2일의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유명한 토마스는 1863년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런던선교회의 선교사로 중국 상해에 도착했고 조선 천주교인을 만난 것을 계기로 조선 선교를 꿈꾸게 되었다. 토마스는 2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1865년 9월 서해안을 방문한 토마스는 약 2개월간 체류하며 성서를 나누어 준 바 있었는데 이듬해에 조선인들을 만나 자신이 나누어 주었던 성서가 평양까지 흘러갔음을 알게 되어 감동하였고 더욱 한국선교에 대한 열망을 키웠다. 그리고 8월 평양으로 출발하는 제너럴셔먼호에 통역으로 올라탔지만 이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한국 방문이 어떤 선교적 결실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선교가 불가능했던 시기 두 사람이 굳게 닫힌 조선의 문을 두드린 것은 한국교회의 여명을 상징하는 사례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교의 열정은 조선의 쇄국정책에 막혔고 오히려 그 결과 한국은 제국주의 침략과 기독교 선교가 분리되는 매우 독특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이후 한국교회가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두 사람의 사례는 짧은 시각에서는 실패와 슬픔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의 문을 여셨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흘러넘치길...

케냐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서울교회 손달익 목사님과 선교위원회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데도 감기에 걸렸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여서인지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둘만 조심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1. 음악 선교센터(찬양신학교) 건축

코로나로 연기되었던 선교센터 건축이 '21년 12월에 시작하여 '22년 12월 23일(금) 현재 일년에 걸쳐 우여곡절 끝에 95% 정도 아름답게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비되었던 경제, 사회가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며 이미 생활비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물품 가격이 시작하던 때에 비하여 약 25% 정도 오르고, 처음부터 예배당만큼은 아름답게 잘 만들어 보려고 작정하고 자연적인 음향을 고려하여 천정제질을 마호가니로 계획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이프러스로 바꾸는 등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닥이 난 건축비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체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음껏 연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노상에서 식사하지 않고 식당 테이블과 의자에서 식사할 수 있고 예배실이 있고 교사들도 교무실이 생기고 각자 자기 책상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수업하기를 위하여 멀리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스텝들을 보내어 교육받게 하고 싶어 많은 문의가 있지만 숙식의 어려움으로 수용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건축이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옆에 작은 크기이지만 땅을 사라고 두 개의 매물이 나와 기숙사를 위해 주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나는 선교센터가 지어지길 바라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마니음악선교센터가 2023년부터는 더욱 새롭게 힘차게 찬양사역을 키워내는 신학기를 시작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봉헌예배를 3월 25일경에 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냐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2. 선교사 건강 상황

거친 공사 현장에서 일꾼들과 실랑이를 하고 밀고 당기며 재료비를 깎고 줄이고... 시멘트 작업과 먼지를 먹으며 완전 피약벌에서 노가다처럼 지내다 보니 얼굴이나 턱 밑이 다 타서 껍질이 몇 번이나 벗겨지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다행히 나이로비병원 응급실로,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 3개 스텐트 시술로 시술을 한 후 중환자실에서 5박 6일을 입원하던 중에 케냐보험이 없는 관계로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퇴원해야만 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연약한 이 자를 주님이 다시 허락하신 이땅과 생명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길 위하여 간구합니다.

3. 학교사역 및 구제 급식사역

(1) 마사이지역 에세키초등학교 340명, 주자지역 미리마이니초등학교 650명, 마다레지역 루아카초등학교 80명 학생들의 점심급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티리리카초등학교 스페셜(장애우)클라

스 학생들은 매주 2회씩 교육하고 간식 제공을 하였습니다. 선교센터 건축 마무리 작업에 신경 쓰다 보니 21년에는 1,200여 명에게 음료수와 과자를 나눌 수 있었는데 올해는 여유가 되질 않아 450여 명 학생과 스텝들에게만 옥수수가루 4Kg씩을 지급하였습니다.

(3) 아마니 음악컨서바토리에서는 현재 29명의 학생을 위해 성경, 음악이론, 키보드, 기타, 찬양인도법, 합창, 워십 앙상블, 등 찬양지도자를 양성하기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충실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찬양자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 저희 선교센터에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교통비도 없어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23년 1월 6일(월)에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루어 왔던 아마니컨서바토리 19명 학생의 졸업식이 새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4) 아마니장학생 :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연결되어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11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1명이 명문 케냐타 국립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크리스찬 리더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중심에 있습니다.

(5)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 12월 16일(금)에 처음으로 8명의 스텝과 가족 38명을 센터에 초대하여 예배와 식사, 게임도 하며 즐거운 파티(?)를 했습니다. 푸짐히 선물도 주고 행운권 추첨도 하여 행복한 시간을 나누며 내년에도 열심히 사역하자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은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건축헌금은 바닥이 난지 오래지만 귀한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지막 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계획한 사역들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 선교사 김낙형·오정녀 올림

2023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2월 11일(토) : 사랑부, 서울교회

구분	주제	주제 말씀	일정	장소
영·유아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창 1:31	2/25(토)-26(일)	서울교회 706호
유치부	바르게 믿어요 (복음과 구원받는 믿음)	엡 2:8	2/25(토)-26(일)	서울교회 702호
유년부	신나는 성경 탐험, 구약 속으로!	시 119:105	2/25(토)-26(일)	서울교회 701호
초등부	비교하지 않아요!	엡 2:10	2/24(금)-25(토)	아가페타운
청년부	사랑받는 자들	요 10:40	2/17(금)-18(토)	아가페타운
사랑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2/11(토)-12(일)	서울교회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2월 10일(금), 사무국에 제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김승록 장로)는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일반, 순례, 광림, 송암, 브리스길라 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 대상은 일반장학금과 순례장학금은 교회 내 대학생, 광림장학금은 호산나 대학생 및 강남구 관내 대학생으로 장애인 또는 극빈자, 송암장학금은 교역자·선교사 및 직원의 자녀, 브리스길라 장학금은 신학생이 대상이다.

광림, 송암, 브리스길라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 이상), 본 교회에 등록된 지 1년 이상인 신앙생활에

모범적이고 교회봉사와 청년부에 출석 중인 대학생으로 청년부 출석여부가 선발조건이다. 청년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봉사부서 또는 청년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2월 10일(금)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2월 26일 저녁 찬양예배 시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농어촌100교회

Vision2030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 비전 2030 후원자

차도훈·남태영(1구좌) 오윤걸(10구좌) 진돈(2구좌) 안선광·고영숙(2구좌) 오만옥·박미영(1구좌) 전인숙(2구좌) 이연서(2구좌) 채혜숙(1구좌) 이선희(1구좌) 김영정(1구좌)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차도훈·남태영(1/2구좌) 차영도(1/2구좌) 오윤걸(1구좌) 이관규·이순영(1구좌) 이용성·이난희(1.5구좌) 채혜숙(1/2구좌) 전인숙(1/2구좌) 정경자(1/2구좌)

■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차도훈·남태영(1/2구좌) 오윤걸(1구좌) 이관규·이순영(1구좌) 현종필(1/2구좌) 안선광·고영숙(1/2구좌) 채혜숙(1/2구좌) 홍혜련(1/2구좌)

동 정

■ 손달익 위임목사는 '총회 중미지역 선교사대회'의 주강사로 초청받아 2.13(월) 출국하여 24일(금)에 귀국한다. 모든 일정과 건강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식사 제공 :

5교구 한대석 안수집사·구진영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2월6일	월	출 34-36		신 1-7	
2월7일	화	출 37-39		신 8-14	
2월8일	수	출 40		신 15-22	
2월9일	목	레 1:1-6:7		신 23-29	
2월10일	금	레 6:8-8:36		신 30-34	
2월11일	토	레 9-11		수 1-8	
2월12일	주일	레 12:1-14:32		수 9-1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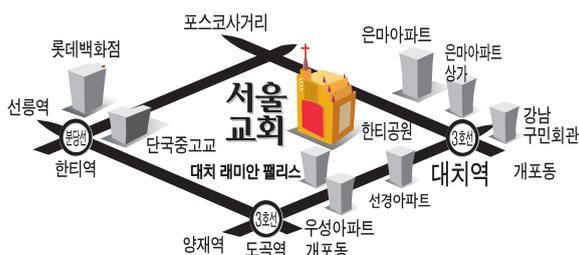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 존전에서(Coram Deo)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 · 성경중심 ·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소서.
2.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사명을 다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한반도에 복음화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